

동중부 KCLC Newsletter

THE GUEST HOUSE

- Jalaluddin Rumi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거나,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뭉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This being human is a guest house.
Every morning a new arrival.
A joy, a depression, a meanness,
some momentary awareness comes
as an unexpected visitor.
Welcome and entertain them all!
Even if they're a crowd of sorrows,
who violently sweep your house
empty of its furniture,
still, treat each guest honorably.
He may be clearing you out
for some new delight.
The dark thought, the shame, the
malice, meet them at the door laugh-
ing; and invite them in.
Be grateful for whoever comes,
because each has been sent
as a guide from beyond.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혈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
(이사야 58, 7-8)

CLC-USA 소식

1. 2023년 예산안 가결
2. By-Law 업데이트 작업: 현재까지 작업 중인 문서이고, 매년 검토하
여 필요시 보충하고 수정할 예정
(*수정된 내용: "National..."이 아닌 CLC in USA)
3. 세계 CLC 총회 대의원 선정과 참가자 (8월 3일~12일):
김 크리스티나, Debb Flynn, Liam, Deidre
4. 2024년 CLC in USA 총회 개최지 신청 - 1/25/23까지 연장하기
로 함
5. Young Adults Summit (1/27~29) 참석자 42명; 동한, KCLC (참
석자: 설헬레나, 배 루시아, 김 세실리아) 와 Ex-CO; 몇몇 예수회원들
과 함께 청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계획을 위하여 상호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을 위해 함께 식별하고 협력
하는 시간
6. CLC-USA 주관하는 리더십 컨퍼런스가 매달 첫째 토요일 (5월까지
진행) * 그간 다루어진 주제: 이냐시안 영적 리더십, 자아 활용, 이냐
시안 관점을 통한 조직 이해

NKCLC-USA 소식

- 김남길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미사 집전으로 달라스 새 공동체 서약식이 12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새 공동체 이름은 엠마오, 실로암,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 2년 동안 각지역 공동체에서 지원해 주신 가이드들의 봉사와 안내로 그간 공석이었던 달라스 지역의 새 공동체 탄생을 환영하고 기도해 주세요.
- 가이드 대상 수퍼비전 교육 시작
- 19번 피정 동반자를 위한 영신 수련 교육 시작
- 지원기 동반자 교육을 위한 Task Force Team 시작

▶ 달라스 새 공동체:
엠마오, 실로암, 임마누엘



동중부 소식

- 2022년도 서약식이 10월 22일에 한민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 지난해 11월 19일 동중부 클러스터 모임이 있었습니다. (클러스터 모임 열매란 참조)
- 1월 8일 팀장 모임: 팀 보고 & 현황, 새 수련기팀 Light Team 환영, 2023년도 동중부 계획표
- 3rd round 까지의 나눔 순서와 Facilitator 역할 안내
- 2023년도 회비 안내 (오종선 로사리아 자매님께 팀별로 보내기 권유)
- 코디 역할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PPT 함께 함
- 1월 21일 가이드 모임
- 1월 29일 양성부 모임: 지원기 교육일정, 클러스터 모임 안내, 북클럽 미팅 안내

양성부에서 알립니다

- 북클럽 미팅 안내: 첫번째 읽기 자료였던 “어떻게 기도 할 것인가?” 책을 2월 중에 마무리하고 두번째 책으로 4월에 북미팅을 다시 시작합니다. 북클럽은 누구나 자유롭게 조인하여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이니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각 팀에서 양성부원으로 봉사해 주실 분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성당 재무 봉사
하실 분을
찾습니다.**

연락: 김 베로니카
(703) 864-1236
연락주세요.



묵상

from Fr. Macario

루카 17,7-10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10)

주님, 요즈음은 ‘쓸모있음’이 세상의 복음입니다. 계산의 복음. 쓸모가 없으면 도태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구요. 그런데 오늘 당신의 제자가 되는 길에 만나는 걸림들을 보여주십니다. ‘당연병’ 환자! 신앙은 언제나 선물입니다. 당신의 종으로 불림 받은 것도 선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쓸모 없음도 당신의 선물이기에 가장 쓸모가 되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선물은 언제나 두가지가 전제로 생겨나지 않나요? 상대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상대에게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당신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포함한 삶으로 가장 귀한 선물임을 드러내십니다.

선물자체이신 당신은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받은 신앙과 당신의 제자 (종)라는 선물은 오로지 당신에

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무상성(無償性)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누구나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유용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루카 13,1-9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7)

주님, 우리의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애가 타는 당신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 애탐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때문에 당신은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기다림속에서 “언젠가는”라는 말은 당사자에게는 참 편안한 말입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분에게는 애간장이 절절하게 탑니다. 회개는 “언젠가는”를 “이제는”으로 바꾸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애탐의 끈을 싹둑 잘라내기 위해서 저의 깨어있음의

칼을 버리는 날입니다. 그 잘라진 끈에서 당신과 저를 연결하는 새로운 생명의 끈이 탄생합니다. 그 끈을 잡고 저는 이 생명의 산을 오릅니다. 아멘

루카 1,26-38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38)

주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것을 모두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필리피 2,7)

당신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안심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때는 바로 우리가 당신의 “생각하는 중”임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구원이라는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 됩니다.



2022년 하반기 동중부 클러스터 모임 지구를 위한 투자 (Investing in our planet)

기도의 열매

★ 1조: 김영숙(데레사), 박상희(로사), 주영자(엘리사벳), 오춘정(아네스), 정선화(도로시)

- 무엇보다도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여 우리 스스로의 내적인식과 관심으로부터 시작하여, 환경과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해야함에 마음을 모음.

★ 2조: 정 해균 (나단), 주인순(레지나), 최동호(다윗), 이해자(비비안나), 김정현(엘리사벳)

- 하느님의 사랑
- 사랑 안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
- 반성과 회개
- 삶의 단순화

★ 3조: 용 복순(데레사), 김연희(데레사), H 데레사, 박이선(유스티나)

-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감사함으로 다가왔으며, 이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 인간의 욕심을 절제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음.

-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 지구를 보존하고 살리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
- 생명 보존
- 절제, 감사함, 자연과의 조화
- 하느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인식과 보존, 무질서한 생활에 대한 회개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온유하심으로 초대됨.

★ 4조: 김민태(요한), 원지성(마틸다), 정진주(아네스), 임문자(비비안나)

-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식적인 동참
- 의식적인 삶으로 생명을 돌보기
-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
-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5조: 김명숙(마르타), 한미영(도미니카), 최경림(세실리아), 강혜진(베로니카)

-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
- 과소비, 과다 구매하는 욕심에 대한 반성과 절제의 필요성 인식
- 시간과 땀과 열정, 불편함을 감수하며 꼭 필요한 곳에 나눠지기를 실천한 유익한 사례에 감동
- 우리들의 무심하고 사소한 행동이 모여져 지구를 파괴하고 있음을 성찰하고, 이제는 우리들의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함을 인식

- 절약, 절제 등 생명력 있는 지구를 위한 새로운 습관을 익혀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 인식
-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 또는 실천 사례들을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지속적인 나눔이 필요함
- minimal life 로 향하는 삶을 실천해야 함을 자각함

★ 6조: 박 앤(안나), 양윤정(카타리나), 김선령(아네스), 이다연(아네스)

- 사랑
- 감사의 마음,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존중
-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편함에 익숙해져서 가벼이 생각하지 않는 마음

* 함께 본 Documentary : 오늘 당신이 버린 옷, 어디로 갔을까? <https://youtu.be/gw5PdQOiodU>

* 김연희 데레사 자매님의 친환경 생활팁과 사례 발표

